"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이틀 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과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어린 지적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고효선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기관은 평생진로교육국,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학생들과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새로 시작하는 아침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감준비하신다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관심어린 지적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관 실국에 대하여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님?" 중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크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총 5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어린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병호 교육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호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매우 크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크시고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발전이 이루어짐에 자부심을 갖고 오늘의 감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해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관심어린 지적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관 실국에 대하여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추가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한 대로 먼저 황인구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긍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매우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과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은 많은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도입되지 않아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해 왔으나 시는 예산을 편성한 반면 교육청은 편성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에 서로 엇박자를 보여 왔습니다. 더욱이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의 정상 추진에 잡음이 있고 사전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무교육의 출발선상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중고생과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복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교육청, 서울시, 구청협의회 간 4자 실무협의체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논의 중인 초중고 입학준비금의 대상이 유치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복지체계의 완성에 앞장서 줄 것을 집행부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더해 유치원 입학준비금 또한 도입된다면 유ㆍ초ㆍ중ㆍ고로 이어지는 교육복지체계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생이 약 7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2만여 명 정도의 3세 아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된다면 약 20여 억 원 정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제안에 대해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하여 교육청이 의회와 함께 서울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이어 금일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종합감사는 그동안 시행한 실국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실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교차검증과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감사 및 정책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종합감사 중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기관장 및 간부들에 대한 증인선서는 지난번 실국별 감사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바로 양민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죠?" 중립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BTL사업 현황, 그다음에 제가 아는 바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30%에 한해서 BTL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BTL 사업사 선정, 물론 그 선정이 교육청 권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정된 업체와 계약 관계에 관련된 서류를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특수학교 내에서 그 특수학교 내 학급에 소속된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부모가정 내지는 맞벌이부부 이런 관계로 인해서 특수학교 내의 돌봄교실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숫자, 우리 교육청 산하 돌봄교실에서 장애를 입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숫자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중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중립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중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중립

네. 중립

네. 중립

권순선 위원님. 중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과학전시관 업무보고서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립

이동현 위원님? 중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립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각 학교통합지원센터 있죠? 중립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립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15분 이내입니다.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없습니다. 중립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데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그러면 자료는 지금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우선 김수규 위원님, 질의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좀 띄워주세요. 제 것 준비됐나요? 다음. 계속 띄워 보세요. 지금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계속 보세요. 다음. 그대로 놔두세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받은 파일 띄워 보세요. 행정국장님, 저게 뭔 줄 아세요? 잘 안 보이는데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예요. 건축물과 근접되거나 접촉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현황 중에 우천 연결통로나 차양 캐노피, 조립식 구조물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각 학교현황에 시설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PPT 자료를 띄웠냐면 최근에 여러 가지 각종 화재로 상당히 인명손실과 사회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학교 관련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쭙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띄운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건축물과 접촉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불연재 사용여부 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입니다. 그다음에 샌드위치패널, 알루미늄 복합패널 이런 것으로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가 불연재입니까, 가연재입니까?" 부정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종감이라서 총평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립

"네, 있습니다." 부정

"연수원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집합연수 세부내역하고 전년도에 연수했으나 2021년도에 폐기된 것, 없어진 것, 폐지된 것. 그다음에 2021년도 신규연수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립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국장님, 잘 지내셨나요?" 긍정

이석주 위원님 없으시죠? 중립

"김수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늘도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잘 계셨죠?" 긍정

불연재로 알고 있습니다. 중립

네. 중립

지금 주신 계획 자료를 보니 성과평가나 만족도조사를 주로 하신 것 같은데 만족도조사라도 그 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으로는 남부하고 동부밖에 없는데 다른 지원청들도 만족도조사 혹은 성과평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김용연 부위원장님. 중립

네. 중립

없습니다 중립

"네, 안녕하세요?" 부정

불연재요? 폴리카보네이트는 가연재죠. 중립

"그런데 헌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권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보다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오히려 이런 기관들이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있지 않느냐, 권력을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좁게 우리 교육청으로 눈을 돌려서 교육청에 보면 교육감님은 선출직이고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서울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니까. 그런데 보면 교육감도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4년 내내 잘못된 부분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적을 해 왔고 개선요청을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장벽들은 우리 교육계, 좁게 보면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교장 선생님들께서 권력을 다 장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장학사, 장학관님들께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4년 동안 교육위원으로서 느꼈던 소회라고 할까요. 아무리 이 자리를 빌려서 개선요청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 재산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 돈으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학교를 지었을까요? 국민들이, 주민들께서 세금 내서 그 학교를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2년 근무하다 또는 4년 근무하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는 관리자죠. 그런 사람들께서, 교장 선생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 마치 학교가 자기 왕국이나 자기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서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단순히 말 그대로 공유재산이니까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공간도 맞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을 터부시합니다. 자기가 관리책임이 있는 2년 또는 4년 동안 다 벽을 치고 장벽을 만들고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문을 닫고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 부감님 제 얘기 듣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

"황인구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지적된 분야, 시정 내지는 권고된 내용이 있으면 종합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립

알겠습니다. 중립

"특성화고등학교 내의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비율,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의 임기 기간이 나와 있는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는 유치원 내에 단말기 및 카드사 가맹계약이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까지는 좋았는데 과연 카드로 입학금 내지는 유치원비를 받고 있는 유치원과 아직도 카드나 단말기는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현찰로 받고 있는 유치원의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립

"먼저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양하게 시민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불편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주셔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서관 있죠?" 부정

권순선 위원님 혹시 있으신가요? 중립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의 서랍장 교체에 대한 예산이 신설된 것 같은데요. 중립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또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사회는 다원사회이고 분명히 민주주의사회입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참여가 보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국가가 아니라 일사분란하게 어떤 일들을 개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디지만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그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교 관련해서 분명히 학교도 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같이 교육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지역사회 수요를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적절히 조절을 해 나가는 반면 또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교장 선생님은 관리책임자로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수요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립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호대 위원님." 긍정

"네, 도서관 있습니다." 부정

했습니다. 중립

"네, 그렇습니다." 부정

"거의 대부분이 폴리카보네이트로 설치되어 있고 사실은 난연재나 불연재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수많은 학교들이. 결과적으로 저것은 불이 타는 즉시 연소되는 거예요, 유독가스도 발생시키고. 어떻게 보면 학교현장이 가장 안전해야 될 지점인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법령에 건축법 제52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라고 딱 나와 있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국토교통부령이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실, 위락시설, 장례시설”은 말 그대로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학교현장은 거의 법령 위반해서 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저 시설물이 설치된 것은 이 법령이 바뀌기 전에 설치된 겁니다. 법령이 바뀌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 나가는 게 맞겠죠?" 부정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고 얘기라면 상식적으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그럴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도 가능하고 대화가 되겠죠.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자리를 빌려서 자꾸 지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제가 부서마다 질의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안전, 아이들 안전, 중요하죠. 아이들 있는 시간에 그게 안전이 통하죠. 아이들 수업 하는 시간에 운동장 대관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됐겠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토ㆍ일요일에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않는데 안전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주차문제를 돌아볼까요? 아이들 다 하교한 시간에, 학교가 텅텅 비어 있는 시간에, 어제 우리 부감님 못 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차문제도, 교직원들이 퇴근하면 주차장이 있죠. 부설주차장이죠. 법적으로 따지면 합법적인 부설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이. 교직원들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교직원들도 4시 30분 되면 보통 다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다음 날 돼서 교직원이 출근할 때까지는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주차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골목골목마다. 그렇다면 머리를 맞대면 그 아까운 주차장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상생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들 없는 시간에 하자는 건데 그것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고 무작정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아이들 안전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방패삼아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제발. 토ㆍ일요일에 운동장 대관하고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아이들 안전하고 문제가 직결된단 말입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기 와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감님. 여하튼 소회를 말씀드리니까 부디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개선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정

네. 중립

"황인구 위원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본 위원하고 논의했던 강남서초교육청 내 과밀학급 해당학교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중립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관련해서 서울시랑 협약서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받고 매칭 비율도 정하고 꾸준히 해 왔는데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시, 아니면 자치구에서 교육청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정

도서관들이 있는데 보내주신 분 말씀으로는 일부 도서관이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설계의 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립

그러면 자료 없는 것으로 하고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이동현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집행이 됐나요? 중립

네. 중립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네, 알겠습니다." 부정

또 추가자료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치시고 우리가 논의한 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중립

설비 기준이요? 중립

"이동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자료 하나 달라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신 거죠? 저는 직접은 못 받았어요. 우리 직원분이 아직 이메일로 안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메일로 빨리 넣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부정

현재 학교로 예산이 배정돼서 학교에서 집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립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거나 파악한 것 있어요? 중립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저도 감사에 대해서 총평하기 전에 기록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금북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중립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회의에서 논의된 바로 제가 먼저 시작하게 됐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 상황에 교육현장이 매우 어려운 과정 속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번 11월 18일은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결정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능 관련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전년도에도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잘 해왔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수능 담당부서의 노력도, 고생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만전을 기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 여러분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부교육감님, 저 영상 보시면 뭔지 기억나세요?" 긍정

과밀학급 관련해서 자료화해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립

네. 중립

"설계를 하는 기준, 혹은 일률적으로 디자인을 한 곳이 있나요?" 중립

"네, 알겠습니다." 부정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서랍장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신청을 한 건가요? 수요를 조사……. 중립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립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중립

"네, 뭔지 알고 있습니다." 부정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자료는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말씀하시면 관계공무원분들이 즉각 즉각 자료 준비를 해서 드릴 것이니까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대로 질의를 시작하는데 김상진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중립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아마 그 도서관별로 설계 공사를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립

그러면 다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생활시민교육과에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팀들이 있죠? 중립

8년 이상된 노후된 사물함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중립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중립

"지난 우리 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것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속기록을 뽑아서 제가 임시속기록을 죽 읽어봤습니다.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현재 금북초등학교의 설문문항에 있어서 어떠한 지침과 방침도 없이 오해의 소지를 담거나 혹은 설문에 있어서 답변을 유도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 저의 얘기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글로 읽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서울시 본청, 교육청과 그리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또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다시 원점에서 설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중립

저게 뭐죠? 부정

네. 중립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이어서, 학교통합지원센터 이것이 2019년 2월에 조례가 됐으니까 2019, 2020, 2021 3년 차네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립

"그런데 대다수 비슷하게 됐나 봐요. 추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서관의 개념은 원래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인데 다들 약간 어떤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카페형식으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도서관 방향이 바뀐 건지, 아니면 설계에 중점을 둔 방향이 따로 있습니까?" 부정

"지금 거기가 제일 팀이 많고요, 한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교육 하고 있고 민주시민기획팀이 있고 성평등팀, 세계시민다문화, 탈북, 특수, 인권도 있고……." 중립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정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중립

"네, 그렇습니다." 부정

"최근에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학부형들께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고, 학교에 정서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만……." 중립

김상진 위원님서부터 질의 시작하시죠. 중립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다 현장밀착적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3년 차가 되면서 저희가 연구정보원의 위탁연구 결과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 교원이 3,885명이 참여한 응답입니다. 공감도가 92%가 나왔고 그리고 업무만족도가 5점 만점에 약 3.9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떠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학교가 교육청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통합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장 선생님이나……." 중립

지금 제가 가본 데는 창의학습공간이라고 해서 도서관 전체를 카페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일정 한 부분을 약간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창의학습공간에 카페형식으로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립

"대표적으로 보면 학생인권, 특수교육 그리고 말씀하신 통합교육 그다음에 특수교육팀 또 평화ㆍ세계시민ㆍ다문화교육팀, 성평등팀, 상담ㆍ대안교육팀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시민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혹시 이 팀 중에서 통폐합이 되거나 다른 식으로 바꿔야 되는, 혹은 지금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혹시 느껴지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중립

그렇죠. 내구연한 8년 이상 지난 노후된 사물함을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214억 원을 교부했습니다. 중립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중립

그러면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중립

"송파구 출신 김상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중립

간단하게……. 부정

"대표적으로 저에게 사진을 보내신 곳은 동대문도서관입니다. 동대문도서관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딱 봐도 카페형식으로 책상이 낮고 의자는 움직일 수 없는 벽에 붙어있는 의자입니다. 이런 의자면 공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 공간이 꼭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 공간은 그런 면이라서 민원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됐었어야 되는데 혹시 미연에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으세요?" 부정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수팀이 3팀이 있는데 특수팀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나와서 과로 분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저희 평생국에 있고 그 후에는 좀 더 조직개편이 본격화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ㆍ대안팀이 업무도 많고 어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신건강이라든가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2팀으로 나눠서 보건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체육건강과에 있는 업무를 1팀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립

그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인가요? 중립

법령 개정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양에 대한 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립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님 그리고 위원님 포함해서 숙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1차적으로 학생들의 이동, 수업 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든 사법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학부모 의견을……." 중립

그렇습니다. 중립

학교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교육청이 그동안은 지도감독 역할로 규정지어진 반면에 통합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학교를 직접 돕는 기관으로서 굉장히 위상의 변화를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긍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가본 데는, 그러니까 전체 도서관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일부 공간 한두 군데 이용자들이 거기에 잠깐 들러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정

"평생진로교육국이 그렇게 되면 갈수록 비대해 진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일단은 상담ㆍ대안팀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대안교육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서울시에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가 우리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과 비슷하게 관리가, 관리책임이 우리 교육청으로 소위 말해서 떠넘겨지는 상황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예산은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나 현재 수준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시대적 흐름에 조금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제가 평상시에 주장을 했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제언을 드리니까 현재는 이조복 과장님께서 정말 잘해 주고 계시는데 특성화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회적 가치가, ESG 경영 들어보셨죠?" 부정

아닙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그 예산이 9월에 확정돼서 교부를 했습니다. 중립

"사실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 말고도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제가 꼭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위반됐고 정확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학교현장은 안전한 측면을 가장 강조해야 될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줬는데 제가 우천 연결통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차양 캐노피, 조립식 구조물, 기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천 연결통로는 거의 대부분이 가연재인 말 그대로 불에 즉시 타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재질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면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연결통로는 더 그렇습니다. 본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는 이 통로에 대한 시설물들은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독립된 건물의 차양 같은 경우는 타도 건물하고 직결되지 않지만 본관 건물들과 연결된 연결통로들은 이 재질 자체를 적어도 난연재로, 준불연재로 다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부정

"혹시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그때 당시 사무감사를 다양한 분들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학교 측에서도 이르게 했으면 좋겠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

"부교육감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직접적으로 방해가 안 되더라도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한테?" 부정

"처음 11월에, 그전에 준비 단계가 있겠죠?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지금 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지요?" 중립

"좋은 얘기 들으셨네요. 그런데 여기 제가 지난해 보고서 받은 것을 보면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은 그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부장교사나 평교사로 내려가면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50% 수준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 설문 조사하신 것은 2021년 새로운 자료이신가 보죠, 좀 아까 말씀하신 5점 만점에 3.9점이라고 얘기하신 것." 부정

좋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전체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간마다 만들어진 목적이나 사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충분한 안내라든지 안내표를 붙이든지 도서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맞추든지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실 때 오해는 없게끔 국장님께서 정확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

네. 중립

"전년도에 예산을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은 이미 전년도에도 파악이 된 거잖아요?" 부정

지금까지 차양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품질기준이 확보된 그런 자재를 사용을 해서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왔고요. 법령이 개정되고 그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시설까지 소급 적용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립

정서……. 부정

그렇습니다. 중립

이것은 2019년에 조사 한번 했고 2020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중립

"네, 알겠습니다." 부정

"ESG 경영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전세계 시민들로 통용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에서 먼저 시작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재활용 분리배출도 있고 기업윤리도 있고 기후환경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충분히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과가 비대하고 많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받으며) 방금 왔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갖고 계시죠?" 긍정

"네, 그렇습니다." 부정

나한테 준 자료도 보면 잘못되어 있는데 가연재를 난연재로 표시했는데 가연재하고 난연재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죠? 부정

조속히 빨리 학교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정서 아니겠어요? 부정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 결과보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감사기간 끝나면 끝이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부정

"저도 2020년에 조사한 그 내용을 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얘기들도 많았고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약간 더 개선해야 될 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설문을 하신 분들이 학교마다 교장ㆍ교감, 행정실장, 그다음에 부장교사 한 명, 그다음에 공무직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을 하셨나 봐요. 물론 다르게 한 곳들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그보다 훨씬 더 평교사들이 서술형으로, 그분들도 그렇고 서술형으로 쓴 걸 보니까 좀 더 평교사들이 이것을 잘 알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교육연수원장님,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연수 내용에 없나요?" 부정

이어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학생생활평점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조례안이 바뀌면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곳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가 만연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 관내 학교에 기숙사가 몇 곳이나 되죠? 긍정

네. 중립

그런데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 부정

그렇습니다. 중립

"네, 알겠습니다." 부정

"네, 그렇습니다." 부정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제도적으로 감사를 받고 난 뒤에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중립

구체적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연수는 없습니다. 중립

잠깐만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외웠는데……. 부정

서울시 곳곳에 있는데 없는 구들이 있습니다. 미설치 자치구가 몇 개 구가 되죠? 중립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이 교육환경 개선에 많이 치중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본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돼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의 여유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하도록 의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중립

"난연재 그다음에 불연재, 준불연재, 가연재 이 순에서 난연재가 가장 안전한 거고……." 중립

"부교육감님, 이 금북초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대답하실 때 보니까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진행한 학교가 총 130여 개 학교인 거죠?" 중립

"심지어는 저런 시위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공사하면 먼지 마신다, 뭐 마신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편지 쓰고 아이들을 시위 현장 앞에 내세우는 게 우리 현재 학부모들의 현실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감사 끝나면 그냥 그만이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항상 그런 식이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론을 제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긍정

정책국에서 연수원에 요청한 것도 없나요? 중립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76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숙사하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 알고 계신가요? 중립

"지금 현재 미설치 자치구가 25개 구 중에서 10개, 강북, 관악, 광진, 금천, 서초, 성동, 성북, 은평, 중랑구 이렇게 저희 서울시 관할에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중립

"감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희연 교육감님의 정책 중 하나가 설레는 등교, 학교의 변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환경개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렸던 부분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게 잘 배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느냐. 전년도에 가구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안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서랍장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다 보면 공장은 한정돼 있고 또 예산은 반영이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이 돼서, 어떻게 잘 공급이 될 것 같습니까?" 부정

불연재가 가장……. 중립

정확히는 93교입니다. 중립

위원님 말씀대로 정서적 폭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긍정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립

그런 부분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연수를 담당합니다. 중립

네. 중립

없는 이유가 뭔가요? 부정

아시는 것처럼 학교회계는 다음연도 2022년 2월 말까지 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부한 것이 4~5개월 사이에 주문을 하고 납품을 받으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교체 수량이 대략 21만 개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공급업체에서 그것이 적기에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학교에서 사고이월을 통해서 하면 신학기 초라도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립

"그렇죠, 불연재가. 그다음에 준불연재……." 중립

93개 학교인가요? 중립

"충분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교육환경보호 법률 있잖아요. 그러한 법률에 저런 유해시설, 혐오시설 또 저런 불법부착물 이런 거 얼마든지 근절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당 학교 교장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노력을 안 할 뿐이지. 정말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교육현장에 저런 불법부착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입장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 학부모 우리 교육주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발전시켜가는 과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한 과정이 민주적이고 올바로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이고 자기 의견 개진하기 위해서 저렇게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저걸 또 추진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본인의 의지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으로 진행된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부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혹시?" 긍정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끝나면 처리결과 보고를 책자로 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중립

그런 내용들은 지역 지원청에서? 중립

조례안 발의하고 나서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자료조사를 통해서 기숙사의 운영규정이라든지 기숙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립

"없는 이유는 저희가 22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일부 있고 작은 도서관도 구별로 20개에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중립

신체적 구조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또 책걸상도 필요하지만 서랍장도 옛날에는 작은 서랍장들이 많더라고요. 적절하게 소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서랍장으로 확대해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

"그다음에 준불연, 난연, 가연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중립

네. 제가 황인구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93개라고 말씀주셨는데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95개로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93개라고……. 부정

알고 있습니다. 중립

"네, 알겠습니다." 부정

"네, 모든 학교에 다 공통으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들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중립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는 76개로 제가 통계를 받았고요. 생활규정을 2021년에 2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규정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지금 6월 전체 운영현황이나 생활규정은 점검됐고 10월에는 전체 규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중립

"국장님, 우리가 교육청 도서관과 자치구 도서관이 많다고 해서 교육청 도서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교육청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의 질과 자치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장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도서관 따로 운영하고 자치구도 운영하고 시에서도 운영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자치구에 도서관이 꽤 있다고 해서 교육청 도서관이 안 들어간다면 모든 도서관은 그냥 통합해서 도서관부를 하나 만드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각 기관이 갖고 있는 도서관의 특징이 다르고 갖고 있는 질이 다른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교육청은 더더욱 도서관사업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언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국 소관이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저는 그것은 오해가 아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표현을 잘못했다고 했어요. 앞으로 종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언론보도 자료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다소 과장이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예 사실과 다르다랑 과장이 되었다는 것은 달라요. 점차 나아갔을 때 미래교육에는 종이장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혹은 글을 처음 떼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은 대다수 책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내가 직접 넘기면서 읽고 쓰고 하는 것이 낫죠. 그런데 그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의학적 자료도 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것과 장서로 공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저보다 장학관님 출신이신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사업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자치구들이 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소규모이기도 하고 혹은 소위 말해서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서관의 기능을 과연 온전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정

"네, 알겠습니다." 부정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공기의 문제, 여러 가지 업무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제가 개선하라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라도 개선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립

앞으로도 진행할 학교들이 꽤 많죠? 긍정

몇 개예요? 93개 학교 중에서……. 중립

"아니, 말로만 그러시고……." 부정

"그럼 교육정책국에서 다 했나요, 연수는?" 중립

점검 중인 건가요? 점검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중립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중립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계신가요? 중립

검토해서 저희가……. 중립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개축이 93개 학교고 리모델링이 123개 학교 그래서 총 213개 학교인데 2021년 대상학교는 57개 학교입니다. 중립

총 95개였습니다. 중립

분명히 하겠습니다. 긍정

"지금 지원청별로 여러 가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보면 학교폭력, 상담 그다음에 학교행정업무 지원 등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청별로 연수를 기획해서……." 중립

"네. 6월에 한 번 했고요, 2회 실시하니까. 그다음에 2학기는 10월부터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립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3군데 정도가 현재 추진되고 있네요?" 긍정

학교지원과장 고영갑입니다. 중립

"국장님, 이 부분 꼭 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학교안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

95개 학교 중에 지금 현재 개축학교로 지정됐는데 안 하겠다고 취소 결정된 데가 몇 개예요? 부정

맨날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긍정

그러니까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일……. 중립

"6월에 검사하셨을 때, 점검을 하셨을 때 문제가 있었던 학교들이 없나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정

3군데는 현재 같은 장소에 개축 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증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중립

교육행정국장님께서 폭넓게 모든 걸 다 업무파악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요소수 문제 아시죠? 긍정

네. 중립

"네, 그렇습니다." 부정

"11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모를 해서 다시 후보자를 선정, 채워 넣을 예정입니다." 중립

네. 중립

하는 일에 대해서……. 중립

지금 폭력실태를 저희가 봤을 때 기숙사 보유교가 교당 한 1.1건 그렇게 있고 기숙사 미보유교는 1.7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중립

"지금 강서도서관, 개포도서관, 구로도서관은 현재 있는 도서관이 행복주택으로 복합화되거나 지하 공용주차장이 복합화되거나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립

네. 언론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립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정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오류, 행정절차의 오류가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하락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명확한 방침과 지침이 부재하고 학교 현장에다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 현장이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학교 현장의 뒤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지 말자는 부모들의 주장 내용이 뭐예요, 핵심내용이? 파악된 거 있어요?" 부정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기초학력 미달 203만 명 대상 소규모 지도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중립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수는 다 진행이 되었나요? 중립

"국장님, 폭력사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폭력은 뭐……." 부정

"네, 그렇습니다." 부정

요소수가 어떤 역할 하는지는 아시나요? 중립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을 주신다면, 1999년도 화성 씨랜드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샌드위치패널 1차적으로 제거하고 그 외의 건에 대해서도 전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정

네. 중립

203만 명……. 중립

"네, 지원청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립

학교폭력. 중립

이외에 신규로 도서관이 더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중립

디젤차인 경우 시동을 걸 때 필요한 부분이라는……. 중립

"아무래도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산사정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 본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을 교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프면 맞아야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부교육감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부정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일선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맡기고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의사결정해서 올라오는 방식을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총무과장님, 부교육감님께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사업의 크기, 사업의 규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위에서 획일화된 것과 아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엄격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학교에 있어서 종합개축 같은 토건사업이나 혹은 학교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사업을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해당 학교만의 문제, 해당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전 학교가 차츰차츰 대상이 돼야 되는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려고 중앙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정부가 있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

뭡니까? 중립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전부 지금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급속하게 저하가 됐는데 기초학력 미달자 소규모 지도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부정

그런데 왜 교사들한테 그런 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부정

학생 간의 폭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정

지금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이전해서 통폐합하고 나서 유휴공간이라든지 부지가 마련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큰 틀에서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

시동 걸 때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부정

"공기, 토양, 화학물질, 동선, 건축기자재 모두 검토를 해서……." 중립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중립

"여기에 많은 11개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이 와있습니다만 수시로 방문해서 학부모들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제일 큰 것은 형식적으로는 학부모 전체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추진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기간이 학생들의, 자녀들의 재학기간과 겹쳐서 이 부분을 졸업한 뒤에 진행하거나 그런 실질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부정

그렇습니다. 중립

실제로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부장선생님들이시고요. 저희 학교업무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일반 선생님들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하고 행정업무는 가급적 행정지원팀이나 부장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립

"여기서 학교폭력은 두 개 다 포함이 됩니다. 학생 간과 교사, 학생 간도 있고요." 중립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 교육청 도서관도 역시 학교부지 안에서만 지을 수 있나요? 중립

네. 중립

"계획이 진행되는 부분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 위원들은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행감도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꼭 행감 때 지적해서 개선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죠?" 중립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모여지는 의견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중립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챙기는 부모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판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그런 기준들을 교육부 통해서 마련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론 사전에 협의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자녀들이 다닐 때 개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다른 아이들이 다닐 때는 해도 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노후화된 학교를 개축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할 것인가,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런 정책적 결정을 했을 때 충분히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사실은 학교가 좀 더 반듯하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안전하게 개축되기를 바라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좀 강성의 학부모들에 의해서 그 의견이 묻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학교가 좀 더 깨끗한 학교로 거듭 변모하기는 바라는 학부모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 부모들의,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극성 부모들에 의해서 그런 의견들이 다 묻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정책적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후퇴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와서 근조화환 놓고 피켓 들고 교육감 그만두라면 교육감 그만둘 거예요? 적어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이것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이 고집부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가야죠. 그런데 부모들의 강한 의견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서 후퇴하면 어느 세월에 저런 교사들 개축하고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어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

"그러니까 그 시행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부정

행정지원이라는 게 학생들의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데 있어서의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중립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부정

"지금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하고, 이게 교육청 도서관이 지어진 지가 30년 이전에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자치구가 이렇게 분구가 되기 전에 생기다 보니까 골고루 배치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

그게 발암물질을 중화해 주고 청정하게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요소수가 없는 디젤차가 그전에 운행이 됐고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직업이 다변화되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긍정

네. 중립

선택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립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염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단은 전체 개축 대상에서 일부 강하게 학부모 의견이 표출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타결이 안 됐고요. 다만 안전에 있어서 저희는 책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학부모 의견을 일부 11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 이외에 희망하는 학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교육청이……. 긍정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해서 저희는 3단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실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책임지고 1단계로 하고요. 또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기초학력지도에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업과정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거기에서도 또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 교육지원청별로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3단계를 하고 있고요. 지난 추경예산도 그렇고 올해 또 저희가 본예산 편성도 그렇고 키다리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담임선생님이 직접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의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인사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립

네. 중립

현재 저희가 점검할 때 나온 것은 그거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면에서……. 중립

"저는 우리 교육청 도서관의 시스템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도서관 가보면 상당히 잘해 놨는데 이게 교육연구시설에 묶여 있으면 부지면이나 그런 면도 참 어려워요, 접근성도 어렵고. 달리 말하면 저는 우리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비슷한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중심적으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2개가 같이 세트로 있다는 것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좀 더 큰 행사 혹은 독서토론, 도서관의 시스템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긍정

"네, 알고 있습니다." 부정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중립

그렇죠. 의사결정을 학교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설문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는 최대한 우리가 모두가 걷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기는 이런 의사를 표현했고 저 B는 이런 의사를 표현했고 C는 이런 의사를 표현했어를 보는 게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지 설문문항마저 다 주는 이것은 자율성은 아니죠.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부정

"지금 당연히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축 대상 학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개축을 해야 될 학교면 그런 것을 갖고 판단해서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반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밀려난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교육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교육현장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한테 시달리고 힘든 것 저도 압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직접 부모들로부터 받았어요. 표를 생각하면 저도 그 부모 말에 동의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표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이 어떤 입장에서, 면밀한 파악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밀리다 보면 교육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키겠어요." 부정

"그것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부정

"그러면 교사들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갖다 어떤 쪽으로 연결해서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그런 뭔가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접근이 단순히 신체적 폭력,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기숙사가, 혹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숙사 같은 경우도 규정을 통해서 폭력을 가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평점제를 최대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학생 인권 조례를 진흥시키고 있는 가운데 현재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하는 시점을 성적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인권침해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셨나요?" 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

"그에 따른 어떤 적응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과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변화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학과 개편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다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과 개편이 아니고 형식적인 학과 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학과 개편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떤 형태로 왜 학과 개편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중립

"위원님, 그래서 크게 작게 다른 이견이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교장 선생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설득과정을 거쳐서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말씀……." 긍정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뿐만 아니고 학교에 또 학교단위지원금까지 내년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립

잘 알겠습니다. 긍정

그래서 인권친화적 기숙사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7월에 제정 후 저희가 인권친화적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쪽도 정비하고 있으며 학교 생활규정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긍정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고요. 국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립 도서관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처럼 어린이도서관이 따로 있는데 또 장애인 전용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장애인도서관이 있나요?" 중립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수요 교육에 대해서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진로교육과에서 직업계고 재구조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공지능고등학교 선정 특성화 지정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저희한테 학과 개편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과 검토를 통해서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립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공제 이런 쪽의 일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예방 차원의 사업들을 안전공제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누누이 지금까지 4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그것이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전공제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접한 게 있어요. 혹시 민원감사가 제기된 것 있습니까?" 긍정

"아니죠, 부교육감님 그것은 학교가 수용 여부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축 토목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항을 왜 못 정해요 찬성 아니면 반대만 정하는 건데. 혹은 연기를 정하게 돼도 기한을 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항 자체가 설문을 수행하는 자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자율적으로 맡기면……." 부정

"제가 부교육감님, 어쨌든 정리하자면 물론 이런 큰 교육행정의 방향을 놓고 지난한 과정 가는 과정에 부모들의 의견 좋습니다, 또 존중되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우리 교육행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고 교육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 그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불러주기를 바랐어요. 단 한 번도 전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민의를 대표하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잖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고. 물론 내 자발적으로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 교육위원도 참석해서 부모 의견들을 들어서 중재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관내 학교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심각해서 교장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설문을 돌렸다가 지금 그것을 취소하고 다르게 방향을 바꿔가고, 이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뭔가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위 본청에서 그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청이나 해당 학교들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혼선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

"오죽했으면 서울시에서 답답해서 서울런이라는…….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청 더 분발해야 된다니까. 시행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을." 부정

"담당하는 상담선생님만이 아니고 항상 학생들을 보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지금 지원청별로 홍보 얘기는 다 나와요." 긍정

말씀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가 발의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례안은 5월에 제가 발의를 했고 통과를 7월에 했는데 그 사이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고 그 사이에 현재 나온 점검결과가 말씀하신 폭력 정도의 수준이라면 관심이 없는 거겠죠.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부정

지금 장애인 전용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어린이도서관은 종로 쪽에 하나 있습니다. 중립

"그렇게 해 주는 건 알아요. 해 주는 건 있는데 이게 비슷한 모형만, 형태만 바꾼다는 거죠. 실질적인 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부정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긍정

네. 중립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긍정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7월에 통과가 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 1~2월에 개정 권고 컨설팅을 시행 예정이고요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규정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

우리 교육청은 어린이도서관은 운영하는데 국립에는 국립 장애인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다수의 도서관이 장애인분들도 불편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그 외에 따로 해서 조금 특화되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수적인 분야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 없을까요? 중립

"사실상 그 부분은 학교에서 그 수요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변경 없이 단순히 학과 명칭만 변경하는 거는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립

지금 어쨌든 감사가 제기돼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 아니에요? 부정

설문 설계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문은 어떠한 설문도 전부 다 답을 유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중립

"정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오늘 와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렵습니다, 힘들고. 충분히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는 교육장님 입장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루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근무 중인 교장 선생님들, 교직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고생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냥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것을 아니라 본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뭔가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부교육감님?" 부정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학교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셔야죠. 애초에 지원청의 역할을 이제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교육감님이 하셨는데,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도대체 공약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걸까요?" 부정

컨설팅을 한다고 하시는데 컨설팅을 떠나서 지금 충분히 우리 교육청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친인권적인 부분을 기숙사에도 적용하면 됩니다. 긍정

현재 계획은 없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립

지금 승인율이 80% 이상이에요. 중립

"네, 그렇습니다. 민원감사 얘기죠?" 부정

그렇습니다. 중립

네. 중립

시행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중립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깊이 홍보될 수 있도록,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긍정

네. 중립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나와 계시지만 작년도에 마포평생학습관이 국립 장애인도서관의 추천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미 학습관 수준이나 교육청 산하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도서관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립

네. 중립

공익제보로 민원이 들어가서……. 중립

설문이 가장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들을 상당히 많이 숨겨놓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부정

이상입니다. 중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

몇 년까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교육감님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

"어떤 컨설팅을 하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점점점점 가고 있는 방향으로만 기숙사도 같이 움직이면 충분히 친인권적인 기숙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통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등하교 시간이 멀어 차이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지 학기 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동기 간 이성교제 시 퇴사조치 이런 경우도, 현재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도 이 제도가 다 사라진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런 강압적인 요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착오적이고 명백한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긍정

"장애인 전용도서관, 소외되고 고통 받는 분들을 각별히 생각하는 우리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긍정

그러면 단순히 학과 개편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셨는데 80%가 비슷한 부분들을 다 개편을 승인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립

"네, 그 얘기, 제가 착각했습니다. 현재 받았고, 11월 1일부로 감사보고서 통보가 왔습니다." 부정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좀 더 역할을 한다면 설문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에 학교에서 변형해서, 왜냐하면 그 설문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또 학교의 의사결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만 설문을 하세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그것을 변형해서 참조해서……." 긍정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진짜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정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지원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해도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네, 알겠습니다." 부정

"저희가 예외적으로 학과 개편 후 3년 이내에 애들 충원율이 50%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중립

이 감사받기 전에 혹시 이사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라든가 상황설명이 있었어요? 부정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고들 많이 하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평가기관 자료를 보니까 교육지원청 11개 중에서 대표보고를 성동광진, 강남서초 이 2개 기관에서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 온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어떻게 성동광진, 강남서초만 보고를 하게 되는지 누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루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여기 교육지원청만 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부교육감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립

네. 중립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예전에 제가 교장선생님들의 임기와 관련해서 4년이 채 남지 않은 분들한테는 연수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제안을 드렸었고, 제가 엊그제도 민원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왜 맨날 바뀌나요?” 이런. 그러면서 “10년 동안 다섯 번째 교장선생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글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또 어느 학교인가 살펴보고 이랬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5년 기간 동안 정년퇴직까지 잔여 임기가 4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교장 자격연수를 받았던 교원이 총 161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분들은 또 4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교장으로 임용이 되셔서 1~2년 하시고 길면 3년도 하실 수 있겠죠. 1~2년 하시고 또 퇴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제까지 적체된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추후로 이것들을 차츰차츰 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립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긍정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 준비하셨습니까? 중립

맞습니다. 특성화학교에 대한 입학지원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어요. 부정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2월 중순 이후에 사무국장이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은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국장하고 여기 뒤에 있는 정병오 부장이 공익제보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자체감사가 더 중요하다, 자체조사가.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라고 해서 접수를 못 하고 그 문서는 파쇄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직원들한테 자체조사에 대해서 철저히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십며칠경에 다시 통보가 오기를 감사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중단하라고 했는데 왜 들어오느냐, 우리 자체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들어와서 통보를 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제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고 나중에 보니까 진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정

학교가 그것을 참조해서 상황에 맞춰서……. 중립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위원님들의 관심……. (「돌아가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학준비금 내년도 초등학교 20만 원 확정된 거예요? 중립

"네, 알겠습니다." 부정

네. 중립

"네, 맞습니다." 중립

아무래도 우리 안전공제회는 이사장님이 비상임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중립

"돌아가면서? 저는 보니까 강남서초는 계속 봐서 내가 언뜻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황인구 위원께서 그린스마트학교,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지역에도 사실 상처를 많이 받고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 역시도, 정말 교육청에서 이번에 엄청나게 큰 미스랄까, 참 우리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실 거니까 넘기고요. 저는 이민종 감사관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감사관님?" 부정

그 부분은 협의 중이어서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그거는 학교교육에 대해서……. 중간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좀 더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정

추가적으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었죠? 중립

시작해 주십시오. 중립

있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학과 개편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긍정

네. 중립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설문을 만들어드리기를 원하면, 수용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만들어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중립

"네, 위원님." 중립

구청에서 먼저 제기를 했고 그래서 교육감께서 구청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정상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안에는 초등학교입학준비금 사업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립

맞습니다. 중립

네. 중립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고등학교도 사실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개편을 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중립

"그리고 실질적로 안전공제회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사무국장이죠, 상임이시죠?" 중립

"감사관님, 감사는 사실 엄격하면서도 일벌백계가 맞습니다. 옛날 23전 23승을 한 이순신 장군께서도 전쟁을 하면서 탈영자라든지 뭔가 규율에 어긋나면 가차 없이 부모 앞에서 목을 쳤습니다. 그 목을 쳐서 자식의 피를 보는 부모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기강이 해이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깊게 느끼시고요. 이것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4개 반인데 5학년, 6학년만 되면 8개 반, 10개 반으로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 그렇게 됨으로써 과밀학급도 생기고 교육에 차질, 그다음에 교육현장에 가보면 학교가 끝나면 부모들이 차 태우러 와서 거기가 아주 교통마비가 돼.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면 감사관 쪽에서 나서서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위장전입이야. 왜 이것을 못 잡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부정

지금 중고등학생들 30만 원씩 주고 있죠? 중립

"학교에 있어서,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임용되시고 1년 만에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 봤는데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1년만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하신, 연도별로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보통 2년, 3년 이쪽에 몰려 계시죠. 그러니까 교원 적체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혁신이나 이런 방향에서 볼 때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의지가 있으신가요?" 부정

혹시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었나요? 부정

"네, 맞습니다." 중립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 생기는 직업이 지금 현재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직업군과 과거의 아날로그 직업군이, 지금 완전히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 필요한 직업군이 있잖아요?" 부정

"네, 그렇습니다. 상임입니다, 그분은." 중립

"아니요, 기준과 방침은 있고요." 부정

"위원님, 학교 배치하고 전입문제는 사실 저희가 많이 해 본 일이 아니어서요. 원래는 학교지원과 소관 담당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립

네. 중립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생, 학부모 또 교사 입장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와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남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다음 후임을 할 때는 적어도 그런 사례는 피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인사 운영의 묘미를 살려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긍정

그때 제가 있었던 학교에는 없었습니다. 부정

영상이 있는데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중립

"네, 맞습니다." 중립

그런데 안전공제회에서 직원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먼저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죠? 긍정

"없죠, 학교에 다 자율성을 맡겼다는데." 부정

"학교지원과 좋아요. 학교지원과가 학교만 지원하지 이것은 사실 감사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학교지원과 업무를 모르고 감사관 업무를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부정적인 측면이고 이것은 잡아야 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정

"주는 건 좋은데 사용제한이 있다고 자꾸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용도로 쓰고 있죠?" 부정

우리 서울 관내 학교 중에서 골프연습장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국정감사에도 나와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중립

"네, 맞습니다." 중립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학과 개편이 현실감 있게 또 산업계 수요에 맞게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

"네, 그렇습니다." 부정

다만 그걸 자동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중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각 학교나 지원청에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지금 교복 등 등교를 위한 의복비하고요 학생들 디지털 관련한 스마트기기 그다음에 일부 도서가 구입 가능하도록, 이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구 및 문구류 부분은 복지심의회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품목을 학생들한테 넓히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지점 수, 사용할 수 있는 지점 수를 그동안 저희가 쭉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한 7,000~8,000개의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립

네. 중립

골프연습장 설치 교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120교로 파악이 됐습니다. 중립

과장님 나와 주시면……. 소리가 안 들리나요? 부정

그리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하고 그 문제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긍정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은 설문이 있고 나서 밑에 부대의견을 달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는 교육청의 몫이고요 설문 자체에서 단답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겠죠. 다 주관식으로 개인의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오류된 점을 뽑아내고 고치고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립

"이게 핑퐁이나 치고, 나는 이것은 사실 감사관님이 할 일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1~4학년이 2개 반, 3반인데 5학년, 6학년 돼서 7개 반, 8개 반이 되는 이런 사태, 이게 교육행정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 일대가 교통마비가 되고, 원 서울시내에서는 전부 괜찮은 학교다, 이것은 물론 어느 지역에 국한될지는 몰라도 사실 이것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장전입이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그린스마트학교 같은 이런 문제도 뿌리 뽑히고, 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관님, 내년 감사계획에 이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까?" 부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사용제한을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교복비, 디지털 구입 그런 데만 쓰지 말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에 필요하다 그러면 교복 말고도 옷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추리닝을." 중립

"그래서 이것이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요청이고, 지역에서 보면 사립과 공립이 너무나 표가 나는 거예요. 사립은 교장선생님이 그래도 가급적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부정

120곳이 있죠. 중립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중립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중립

"네, 그렇습니다." 부정

저희가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중립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

지금 생활복이나 체육복 다 됩니다. 중립

그렇습니다. 중립

"초등학교 21, 중학교 44, 고등학교 55개 교 있습니다." 중립

2021년 스포츠한마당 보니까 교육청 거기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긍정

김수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곧바로 공익제보 형태로 해서 민원감사가 진행된 이유는 뭐예요? 부정

"제가 사실은 뒤에 시간은 교육청이 잘한 점들을 얘기하려고 뽑아왔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요. 교육청이 애써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에 빈틈없이 해 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보다, 제가 보니까 큰 사업일수록 책임교육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교육 행정을 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긍정

검토 잘 해 보시고요. 긍정

또 내가 배고파서 먹을 수 그런 용도라도……. 애들한테 자율권을 줘야지. 부정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정감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 교장선생님이 또 문제가 생기나? 또 가나?’ 그런 우려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의 신뢰회복 그다음에 공교육의 성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학교에서 중요하신 분인가요." 부정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중립

"네, 맞습니다. 9월 11일에 본선 대회를 했는데요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들의 신체활동 욕구들 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비대면 상황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행사고요. 지난해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실시했고 교육부가 전국대회로 확산을 했고요 올해 2회째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참가학생 수가 늘어났고요." 중립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중립

위원님께 계속 보고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긍정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립

"음식은 안 됩니다. 주로 교재, 문구류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이런 용도로 일단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립

그렇습니다. 중립

골프가 이제는 서민운동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학생들이……. 중립

그랬더라고요. 부정

네. 중립

"제가 가급적이면 안전공제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안전공제회를 총괄하는 것이 사무국장입니다. 방금 전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은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일반적으로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거기 사무국장으로 가세요, 채용과정 얘기를 특별하게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적어도 그 안전공제회 사무국장으로 갔으면 상임입니다. 말 그대로 항상 근무하면서 그 조직을 챙기고 안전공제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장 최종적인 책임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보다는 사무국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공제회 운영 시스템을 보면." 부정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

답변하십시오. 중립

"그 조례를 고쳐서라도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마세요. 돈 30만 원 주고 말이야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교복, 디지털 구입하는 데만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장님도 두발자유 하셨잖아." 부정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을 리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각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

서민운동이요? 중립

"영역도 3개 영역으로 했습니다. 스포츠클럽 영역하고 스포츠 피트니스, 그러니까 체력 관련이죠. 그다음에 스포츠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창작활동 이렇게 세 가지 영역별로 해서 20개 종목 시행이 됐습니다." 중립

"저는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죠?" 중립

맞습니다. 중립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나와 보실래요. 없어? 둘 중에 그럼 누가 답변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보건진흥원에 관한 거 누가 답변하십니까? 부정

위원님 말씀대로 위장전입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40건이었는데 지난해는 54건 해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거주 이전이 있으면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확인을……. 부정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면은 검토를……. 중립

"네, 알겠습니다." 부정

옛날에는 특정 계층이 하는 운동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완화된 그런……. 중립

애써서 준비한 것이니까 보시죠. (10시 3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내용을 보니까 약간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오징어게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에서 오징어게임을 응용한 체육활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부정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그 조직 내 직원들하고 반목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부정

말씀하시면……. 중립

부교육감님도 이 사태에 대해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셨네요? 부정

입학준비금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더 광범위하게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정

"네, 맞습니다." 중립

"업체 선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합니까?" 중립

맞는 말씀입니다. 긍정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부정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중립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

혹시 짧게 첨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중립

그럴까요? 부정

"일단 인원들은 이전 체육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그렇게 크게, 오히려 적지만 팀이나 이런 경우들은 못지않게 많더라고요." 부정

교육청에서 합니다. 중립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립

"단속 좀 하세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 전부 내 자식 있을 때는 그린스마트 하면 안 돼, 내 자식 있을 때는 좋은 학교 보내야 돼, 전부 이러기 때문에 교육질서가 마비돼 버리고, 과감하게 잡아야 돼요, 과감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부정

"네, 됐어요." 부정